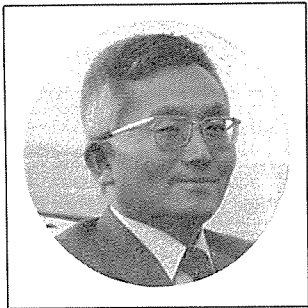


歷史의 記錄으로 본 日·月食예보

日食중시

月食무시



— 太陽은 임금을,
달은 왕비를 상징으로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 · 科學史)

요즘 TV 연속 방송극에 장희빈 이야기가 한창이다. 張禧嬪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른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지체 높은 양반이 아닌 진짜 “보통사람”으로 태어나 한 때 肅宗의 아내인 왕비가 되었지만 끝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마는 그녀의 일생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슬픈 이야기도 많다. 그런데 그의 운명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李肯翊이 쓴 역사 책 燃藜室記述에 이런 과학사와 관계된 것이 있다.

“숙종 15년(1689) 3월16일의 일이다. 마침 寒食날이어서 임금이 친히 장렬대비의 혼전에 제사를 지냈다. 막 제사가 끝나 백관들이 임금께 위로의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식이 일어났다. 개기 월식인데, 그날 밤의 월식이란 예정에 없던 것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더니 그 후 4월21일에 임금은 처음으로 폐비할 뜻을 신하들에게 밝혔다.”

이 기록은 <연려실 기술>의 한자로 써 있는 기록을 그대로 한글로 옮긴 것이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당장 몇 가지 과학사적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 여기에 보면 우리선조들은 17세기에 월식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

것은 사실일까? 언제부터 월식은 예보가 가능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일식도 예보를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알아 볼만한 일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월식과 일식의 예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 역사에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시작과 함께였다. 월식은 그렇지도 않지만 일식은 어느 다른 것보다 먼저 역사에 기록된 셈이다. 신라의 첫 임금 혁거세 때에 이미 일식이 일곱번이나 있었다고 적혀 있다. 혁거세는 61년동안 임금 노릇을 했다고 돼 있는데, <三國史記>에는 그가 앞에서 태어난 과정을 소개한 첫 기사 바로 다음으로 기원 전 54년 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적어 놓고 있다. 혁거세의 재위 기간에는 모두 23가지의 기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7건이 일식이다.

일식의 기록은 그 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그후에도 주욱 우리 역사에는 일식 기록이 계속되어 있다. 그러면 월식의 경우는 어떨까? 이상하게도 <삼국사기>에는 월식의 기록이 없다. 고려 시대에는 모두 221건의 월식이 일어난 것으로 적혀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때에는 한 번도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월

식이 우리나라를 피해 다니다가 고려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뒤에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고려 초에는 월식 예보에 실수했다고 조사를 받는 기록도 보인다. 1026, 1156, 1196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기록으로 보더라도 월식은 11세기부터는 이미 예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월식 만이 아니라 일식도 11세기부터 예보되었다는 증거가 보인다. 그렇다면 삼국 시대에는 월식을 예보하지 못했던 까닭에 기록도 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삼국사기〉에 월식 기록이 없는 것은 삼국시대에 월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런 기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삼국사기〉를 편찬한 金富軾 같은 학자들이 월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닐까? 조선시대의 일이지만 燕山君은 천문학자들에게 월식 따위는 기록에 남길 것도 없다고 말한 것이 있다. 태양은 임금을 상징하니까 태양의 밝음을 어지럽히는 일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왕비를 상징하는 달이 어두워지는 월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바로 여기에 숙종 때의 월식기사에 대한 대답이 있다. 앞에 소개한 〈연려실 기술〉의 월식기록은 그 뒤에 일어난 閔妃의 폐비를 예고하는 조짐이라 여겨져 이책에 남게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예정에도 없던 월식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은 왕비의 신상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 사건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날 밤 예보되지도 않은 월식이 일어났을까? 당시에는 일식과 월식은 모두 정확히 예보할 실력을 갖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천

태양은 임금을 상징하니까 태양의 밝음을 어지럽히는 일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왕비를 상징하는 달이 어두워지는 월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실록〉은 임금이 죽으면 바로 그 임금 재위 기간에 역사를 편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식, 월식은 물론이고 온갖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기록돼 남아 있는 것이다.

문학자들이 그날 밤의 월식은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 말인가?

그날 밤에 월식이 정말 있었던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實錄〉을 찾아 보면 된다. 〈실록〉은 임금이 죽으면 바로 그 임금 재위 기간에 역사를 편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느 사료 보다는 상세하고 또 믿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일식, 월식은 물론이고 온갖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기록돼 남아 있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숙종 15년의 3월16일 〈실록〉 기록에 그날 밤의 월식이 있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월식은 음력으로 보름날이나 그 하루 전 후 쯤에나 일어날 수 있는데 3월15일 전후를 아무리 뒤져 보아도 월식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앞에 소개한 〈연려실 기술〉의 월식 기사는 야사에만 남아 있는 이야기이고, 또 그 내용에도 이미 그 월식은 예고돼 있지않은 것이라 적혀 있다. 그런데 〈실록〉에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 이제 그 기록은 뒤에 조작된 일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이 기사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져 민간에 전해 내려오다가 역사책에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사실 왕비가 쫓겨난다는 일이 어디 보통의 일인가? 아무 흉조도 없이 한 나라의 왕비가 쫓겨 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마음가짐속에 이런 거짓말은 천천히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긴 〈실록〉과 대조해 보노라면 장희빈의 사건만 해도 믿기 어려운 전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역시 과학사적인 흥미를 돋구어 주는 일로는 민비를 내쫓는 장면에 나오는 숙종의 설명이다. 전설에는 민비는 모두 훌륭하

고 장희빈은 온통 사악한 여자인 듯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것이었다고 보인다. <실록>에 남아있는 숙종의 폐비 설명에 의하면 민비는 질투가 몹시 심했고 또 모함까지 여간 아니어서 임금의 폐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 중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숙종은 前例를 알아 보려고 노력했고, 폐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비는 투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간악한 계교까지 부려 張禧嬪을 모함했다는 것이다. 민비는 임금 자기에게까지 공공연히 장숙원은 원래 짐승이었는데, 임금의 화살에 맞아 죽어 그 원수를 갚으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서 모함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비는 장숙원은 팔자에 원래 자식이 없다고 말했는데, 장숙원은 아들을 낳았으니 민비의 거짓이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숙종은 말했다. 3백년 전만해도 우리 선조들은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팔자가 어떻다거나 등등 지금으로서는 미신에 불과한 이야기들을 제법 신용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민비는 1689년 5월2일 庶人이 되어 자기 친정으로 쫓겨 갔다. 1680년 숙종의 첫 왕비가 죽자 이듬해인 숙종 7년 계비로 책봉되어 궁에 들어 온 민비 또는 仁峴왕후는 8년만에 쫓겨나고 말았다. 그 때 숙종의 나이는 29세였고, 민비는 23세였다. 이미 昭儀에서 嬪으로 승격되어 있던 후궁 장씨는 1690년 10월 정식으로 왕비가 되었다. 또 그의 아들은 이에 앞서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뒤에 景宗이 된다. “장희빈”하면 그녀의 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희빈”이나 되는 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희빈”이란 “빈”으로써의 그녀에게 주었던 이름이어서 조선시대의 역대 후궁 가운데에는 “희빈”이란 이름은 물론, “경빈”이니 “영빈”이니 하는 이름들이 아주

3백년 전만해도 우리 선조들은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든가 팔자가 어떻다거나 등등 지금으로서는 미신에 불과한 이야기들을 제법 신용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저주를 통해 인간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믿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이런 현상은 모두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재미있는 과학사적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많다. 또 우리는 장씨가 정1품의 빈이 되기 전에 소의(정2품) 숙원(종4품)등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출세하던 왕비 장씨는 왕비가 된지 4년 만인 1694년 다시 왕비에서 밀려나 빈으로 격하되고, 쫓겨났던 민씨가 다시 왕비로 복위된다. 당파 사이의 심한 다툼 속에서 이들 젊은 여성들은 정치의 희생이 되었던 점이 많다. 여하튼 다시 왕비가 된 민씨는 7년만인 1701년(숙종 27)년 35살의 나이에 세상을 떴고 그의 죽음은 장씨의 온갖 저주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씨는 무당과 궁녀들을 동원해서 민비의 화상에 화살을 쏘는 등 온갖 못된 저주를 다 했다는 것이었다.

<실록>에는 당시의 조사과정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돼 있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저주방법을 썼는지 짐작하게 한다. 화가 난 숙종은 이번에는 장씨를 처벌했다. 야사에 의하면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자 장씨는 그 약사발을 내팽개쳤고, 이를 전해들은 임금은 화가나서 몸소 장씨의 거처로 가서 그 문짝을 뜯어 내어 장씨를 덮고 그 위에 궁녀들을 올라가게 해 죽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실록>에는 아무 힌트도 남아 있지 않다.

민비 장희빈에 얽힌 사건에서도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3세기전의 우리 선조들은 월식이란 왕비에 대한 흉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과 동물의 구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 저주를 통해 인간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믿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이런 현상은 모두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재미있는 과학사적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